

'재범의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88년 6월 항쟁 이후에야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장기수로서는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번민을 했습니다. 굉장히 처절한 번민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20대 때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사회이론, 사회과학이론 등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번민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사회이론, 사회과학이론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날이 축적되는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구체적 애착 가운데서 사회이론을 접하지 않으면 그 사회이론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감옥의 죄수들은 밖에 나가면 무엇을 할까? 어떤 식으로 살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다가도 문득 그 비현실성을 깨닫고 갑자기 실망을 하곤 합니다. 저도 감옥에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까? 하는 상상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런 생각들에 공통된 것은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 구체적인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 그런 것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권운동은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인권운동을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대개 20대 정도의 젊은 사람들로써 사회의식에 눈을 뜬 사람들은 별로 인권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권운동이라는 것이 그 나름대로의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치중립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매몰되어버릴 때에 사회의 질적인 부분, 구조적인 문제를 놓쳐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렸다고 할 때, 가치중립적으로 '사실'만에 매몰되는 인권운동은 '도둑과 피해자'라는 근본적인 사회관계는 보지 못하고 누가 누구를 때렸다는 '인권침해 현상'에만 관심을 빼앗김으로써 그 도둑의 인권을 옹호하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도둑질 그 자체, 구조적으로 자행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라의 인권운동이라는 것이 왕왕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인권과 자선의 구별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권운동은 구체적인 일입니다. 인권운동은 구체적인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인간사를 직접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인권운동의 영광일 수도 있고 오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욕이라 함은 사회의 질적, 구조적 문제를 꿰뚫어 보려는 노력없이 가치중립적으로 구체적인 일에 매몰되어버릴 때,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 함은 인권운동이 구체적인 인간과 인간사를 직접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애정, 인간사에 대한 애착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체 사회를, 그것이 어떤 사회가 됐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건 인간의 얼굴을 가진 것으로 바꾸어 나갈 그런 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인권운동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인권운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출옥한 88년 5월달에 인권운동을 바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

가 진전됐습니다만 아직도 잠에서 덜 깨어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 문제를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장기수' 라고 하면 누구 이름이냐고 제게 묻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상전향문제 같은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사회안전법의 대상이 된 장기수 출신이 약 5만(75년)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사상전향이라는 문제를 겪고, 전향을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그렇게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사상전향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상전향문제를 직접 이야기할 만한 조건이 못되었기 때문이고, 전향을 하고 나온 분들도 사상전향의 문제를 이야기 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안에서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수 문제, 사상전향문제, 즉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타부였던 문제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 자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구금해 놓았던 사회안정법 폐지운동을 했고, 사회안정법 폐지운동의 충분한 성과는 없었지만 대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사회안정법은 89년에 없어졌고 보안관찰법이라는 대체입법으로 대신 되었습니다. 저 자신은 이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안정법과 똑같지만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만 없어지고 경찰의 지속적이고 합법적인 감시감독 하에 저같은 사람을 두는 법제도입니다. 그 법에 의하여 과해지는 여러가지 일상적 의무를 거부할 때는 징역 2년에 처해집니다. 작년 제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바로 이 법률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회안정법 폐지운동을 하고 있을 무렵,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 제게 장기수 가족모임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기 싫었는데 장기수 가족이라는 부인들이 제게 찾아와서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마치 출소 직후에 맨 먼저 나온 사람의 죄로 세상을 향해 장기수 이야기를 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장기수 가족들, 부인들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글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민가협』에서 『장기수가족협의회』 회장으로 열심히 장기수의 짓밟힌 인권을 옹호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분단상황과 결부되고 있는가를 실감했습니다. 특히 장기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수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수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나라의 인권문제 전반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면 한 부분만 깊이 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일거에 알려고 하면 사회 전체에 대한 통찰이 심오하지 못하고 결국은 수박겉핥기로 끝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도소의 인권문제라는 것은 특히 그 사회의 모순이 집약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교도소에 대한 깊은 관심은 이 사회의 가장 깊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훌륭한 통찰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장기수 문제를 다루다가 저는 좀더 넓은 인권문제를 다루고 싶어서 민가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민련』 인권위원장으로

들어 갔는데, 그것은 애당초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곳에서 저는 인권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때 그때 터지는 시국사건에 대한 뒤치닥거리만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강경대 학생이 경찰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뒤이은 분신행렬, 그리고 바로 그 분신행렬 중 한 사람이 제가 전민련에서 데리고 있었던 저의 보조활동가 『김기설』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김기설을 잘 알고 있고 김기설의 필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설이 쓴 유서를 가지고 검찰이 같은 전민련에서 일하는 강기훈 씨가 대필했다고 발표했을 때, 제가 모르면 모를까 진실(필적)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입장에서 그 일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나 다름없는 입장에서 그 사건의 한가운데로 휘말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이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했고 저도 선봉에 서서 검찰과 신문지상을 통해 참여한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위에도 별로 참가한 일이 없고(시위에 참가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시위에 참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인권사업을 하느라 바빠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집시법으로 구속했던 것입니다. 집시법으로 구속해 보니까 집시법에 걸릴 것이 없고 그렇다고 풀어줄 수는 없고 해서 그들은 보안관찰법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보안관찰법으로 구속된 것은 제가 첫 case였습니다. 검찰이 절 구속한 진정한 이유는 제가 유서사건을 가지고 선봉에 서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보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성동구치소에 약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1실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만 성동구치소에서는 옛날에 장기수로서 징역을 살 때와 또 다른 의미에서, 다른 시각에서 교도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교통 때문에 면회를 다니는 부인들의 경우 교도소에 가는데만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기다가 교도소에서 접견신청을 해 놓고서도 또 1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면회를 하는 시간은 짧을 때는 3분, 길 때는 한 7분 정도입니다. 한 사동에 같이 있었던 수감자가 하루는 면회를 갔다 와서 "면회를 왔는데 마누라가 무식해서 5분 면회를 하는 동안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고 울기만 해서 속상해 죽겠다."고 말하며, 그날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었습니다.

또한 징벌을 받은 잡범은 교도소에서 계구(戒具)사용이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징벌을 받는 두달 동안 계속 수감이 채워진 채 공공 묶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사실 수감 같은 것은 긴급할 때 사용하는 도구지 고통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구사용이 허락되어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교도소에서는 징벌을 받은 사람에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수감을 채운 채 공공 묶여 놓고 골탕을 먹입니다. 심할 때는 등 뒤로 수감을 채워 놓습니다.

또 의료문제로 일반 미결수들이 얼마나 의료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가를 보면서 저는 앞으로 어차피 제가 인권운동을 하게 될텐데 열심히 인권운동을 하다보면 뭔가 자기 전공분야가 생길 것이고, 그것을 감옥의 인권문제로 정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지금도 제가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인권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감옥의 인권문제를 열심히 좀 파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10년 정도 열심히 감옥의 인권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아마 감옥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은 감옥으로서 독립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에서 그 사회 구조의 맥락 속에 놓고 감옥을 보지 않으면 감옥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을 감옥으로서만 독립해서 보는 일, 그 일은 감옥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옥이라는 현상을 이 사회구조, 그때의 역사적 상황의 맥락 속에 놓고 깊은 통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주제는 '장기수 눈을 통해서 본 교정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문제는 장기수의 눈을 통해서 보나 일반수의 눈을 통해서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제의 의미를 약간 다르게 받아들여서 '장기수 입장에서 본 교정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장기수 입장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 다른 문제보다 월등히 고통스러운 것, 또 장기수라는 특수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가지 고통이 결국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상전향이라는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장기수 처우 문제의 핵심은 사상전향문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가지 잡다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상전향의 문제, 사상전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사상전향이라는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가? 그리고 사상전향이라는 제도로 말미암아 전향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사상전향이라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교도소에 장기수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90명 가량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조건에서 교도사육 일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께서 사상전향의 문제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상전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반국가사범, 정치범, 사상범 등 이런 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제도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로는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말기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천주교 신자, 소위 말하는 천주학쟁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길가에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밟게 하는 그런 행위라든가, 마리아 상에 침을 뱉게 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역시 사상전향제도와 맥이 통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와 사상전향제도가 다른 점은 사상전향이라는 제도는 지극히 정치적인 제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밟기라든가 마리아 상에 침뱉기같은 것들은 그 사람의 내심을 알아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사상전향이라는 제도는 내심을 알아내는 행동과 그것을 강제로 바꾸게 하려는 행동이 같이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상전

향제도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나찌스 독일에 이런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나찌스 독일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전향,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포기한다고만 하면 거기서 질차가 다 끝나는 그런 전향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제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천황폐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제도는 적극적 사상전향제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1868년에 일본은 근대화에 들어섰습니다.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근대화 조치로 인해서 사회변동이 일어나고 시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속에서 각종 사회운동이 대단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가측으로서의 대응책으로 생긴 것이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특히 근대 형벌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나 치안유지법의 공통적인 것은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하거나, 그 어떤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아도 조직하고 가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법률이 국가보안법, 치안유지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고 치안유지법이 먼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바로 치안유지법의 구조를 따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상범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치안유지법은 체제를 부인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가입하는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정(大正)시대에 대단히 활발히 일어난 사회운동을 이 치안유지법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대단히 많은 구속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구속자를 일본의 형무당국은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 전부를 다 잡아들이면 감옥이 완전히 피어 터져버릴 것이고, 그래서 『반성문』이라는 것을 쓰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상전향제도의 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생겼습니다. 1930년 즉, 치안유지법이 생긴지 한 5,6년이 지나서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이 무렵에 사상범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 잡니다.

전향이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한자 문화권이라고 해서 쓰여지는 한자가 대체로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향이라는 말은 중국어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정치적인 사상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의 전향이라는 말이 중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없습니다. 이런 전향이라는 말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면서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향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일본에서도 역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보안관찰법같은 법률이 있었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 들어선 최후 발악기에는 저를 잡아 가뒀던 사회안정법 같은 그런 법률이 일본에 생겼습니다. 이 보안구금제도 때문에 형량을 다 채우고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이 패전함과 동시에 풀려났습니다.

일본이 패전했을 때 미국이 점령을 했습니다. "정치적, 시민적, 및 종교

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철폐에 관한 각서"라는 것을 점령군이 냈을 때, 그럼으로써 일본의 치안유지법은 폐지가 되고 사상전향이라는 제도도 일본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사상전향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에는 사상전향이라는 말을 대체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전향이란 말은 일단 없어지고 『탈당』이나 『탈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되다가 이것이 정식으로 사상전향이란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부활한 것은 1956년입니다.

우리나라 감옥은 1948년 쯤에 완전히 정치범으로 비좁고 들어갈 새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안법이 생긴 것은 1948년 12월입니다. 1948년이라는 해는 정치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해인데 그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주 4.3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사건은 『여순반란사건』에 뒤이어 생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5.10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잡아 들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치안 유지법이 생긴 것과 비슷한 배경, 즉 대단히 활발한 반정부운동이라는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써 이런 움직임을 한꺼번에 다스릴 수 있는 법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보안법이 생겼는데, 그 당시 국회에서는 대단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국가 보안법의 규정이 너무 애매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애매할 경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기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애매하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자기 맘대로 확대 해석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어떤 국회 위원은 반대했고, 일본 치안 유지법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국가 보안법) 일제의 잔재가 아닌가 하는 식으로도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통과되었고 국가 보안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38선 남쪽이었던 『개성형무소』 그리고 『서대문형무소』, 『마포 형무소』에서는 북한 인민군 선발대가 내려와서 문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무소에서는 국군이 퇴각하면서 정치범들을 거의 다 죽이고 후퇴했습니다. 부산형무소의 경우같은 약간의 예외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됨으로써 감옥의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장기수라 하더라도 전쟁 이전부터 징역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때 풀려났거나 아니면 형무소 뒷산에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감옥은 정치범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50년대 후반에 복역했던 정치범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통계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50년대 후반에 감옥살이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교도소 수감자의 70%내지 90%가 정치범이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정치범이었습니다. 잡범은 거의 예외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렇게 많은 정치범으로 미어터지는 그런 교도소에서 정치범에 대한 분류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유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도저히 유화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권에 대해서 적대적인 부분과

덜 적대적인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56년에 법무부 장관의 훈령이 각 교도소에 내려 갔습니다. 이것은 사상전향 제도의 공식적인 부활입니다. “전향을 거부하는 사람을 격리하라”하는 그런 훈령입니다.

장기수, 장기수 하지만, 장기수의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잠시 집고 넘어 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징역만 살면 장기수인가? 저희들은 일단은 일반 장기수를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장기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과 정치적인 장기수들과는 대단히 많은 조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7년 이상의 형기를 받고 복역하는 사람을 장기수로 규정합니다. 왜 7년인가? 우리나라에서 감옥살이 하는 90명의 장기수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형법상 간첩죄의 형기가 7년 이상, 무기,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7년 이상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는 도저히 법정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 장기수가 많았습니다. 전쟁 때는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것도 항소나 상고가 없는 단심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당연히 빨치산, 부역, 북에서 넘어오는 공작원, 이런 사람들로 해서 법정 자체가 미어 터졌습니다. 이런 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었던 그 당시 군사 법정에서는 한때 재판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명단에 따라서 줄을 세워 놓고서 “앞줄은 사형, 두번째 줄은 무기, 세번째 줄은 15년” 하면서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사상전향제도가 생겼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50년대를 통해서 전향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가?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5.16」입니다.

5.16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 5.16직후에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전향을 하지 않은 장기수들을 대전교도소로 모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전교도소는 일제시대부터 유명한 정치범 중 구금 교도소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일반 사범에 대해서도 누범자 교도소로 되어 있고, 전국에서 가장 규율이 센 교도소입니다. 저는 대전교도소에도 있어 왔고, 광주, 전주, 청주에도 있어 보았습니다만 대전교도소와 다른 교도소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5.16직후에 비전향 죄익수를 모았을 때 비전향 죄익수의 수가 800명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800명이었던 것은 아니고 칠백 몇십 몇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여성 15명까지 포함해서 비전향자가 800명에 거의 육박했다는 얘깁니다.

참고로 5.16직전에 4.19가 있었습니다만 4.19직후에 이 죄익정치범에 대한 대규모적인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에, 전쟁 때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간첩죄가 붙어 있지 않은 사람, 즉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빨치산이나 부역,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20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간첩죄의 적용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감형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무기수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기형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형량의 1/3내지 2/3를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도소

장기수의 역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연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린 저의 사건 때문에 서울 구치소에서 형을 받고 대전교도소로 넘어 갔을 때가 72년이었습니다. 5.16 직후부터 10년이 지난 것이지요. 그때 장기수들은 전국 4개 교도소(대전, 대구, 전주, 광주)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안동같은 데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4개 교도소로 분산된 비전향 좌익수의 수가 4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에 만기출소를 했거나 전향을 했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그런식으로 해서 반으로 줄어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전 교도소에 있었던 1973년경 대대적인 전향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그 『유신』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전향공작들이 전혀 바깥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졌었다 해도 바깥 세상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20년이 지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느끼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할 때, 공포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모든 상황이 풀리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도 거의 의미가 없어진 시절에서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973년에 전향공작 전담반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개 채용 시험으로 들어간 사람들과 그 직전까지 안기부(그 당시 중앙정보부)같은 정보기관에 있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원래 교도소에서는 교화요원이 1명 내지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전향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교화요원을 대전교도소의 경우에는 16명, 그리고 광주교도소의 경우에는 약 8명, 전주교도소의 경우에는 6명, 하는 식으로 대거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적인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교도소같은 경우에는 두 평정도 되는 방에 우리같은 사람 한명과 무시무시하게 생긴 문신투성이인 흉악범들 두 사람정도를 같이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전향할 때까지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저는 거기서 3 사람이 전향하는 것까지 보고 광주교도소로 갔습니다만 그 방에 들어갔다가 10분만에 죽어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빨치산 연락병을 하다가 잡혀서 그 당시 징역을 20년정도 살았던 『최석기』란 사람이 10분만에 맞아 죽었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는 온몸을 바늘로 계속 찌르면서 전향을 시키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와서야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광주교도소로 갔습니다. 광주교도소로 갔을 때 비전향 좌익수가 65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중적인 전향공작을 받은지 석달정도 지난 후에는 26명으로 줄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때 대단히 큰 고생을 했는데 자살을 할려고까지 기도했다가 죽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몸에 흉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73년부터 시작하고 74년에 걸친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70년대가 끝날 때까지 단속적으로 폭력적인 전향공작을 했습니다. 73년, 74년을 거치는 짧은 기간 동안에 400명이었던 좌익 장기수가 다시 반 수 이상 즉 18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때 전향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때쯤에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집중적인 폭력이 있었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현실을 이해하는데 사람들은 『7.4공동성명』을 이야기 합니다. 7.4공동성명은 72년이었습니다. 72년에 7.4공동성명을 낼 때에 정치범 교환이라는 가 석방같은 이야기가 나왔음직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역사적으로 봐도 정치범이 괴로울 때는 바깥 상황이 풀릴 때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정치범 석방이나 교환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 편이나, 북쪽이나 남쪽이나 또 어느 사회가 됐거나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적대적인 정치범의 의식을 개조시켜서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다시말해서 정치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병신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73년에 생긴 전향공작 전담반 사람들은 이야기 했습니다. “생명을 적어도 좋으니 비전향자가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 특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 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4.19직후에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20년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빨치산들이 무기징역에서 20년으로 감형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20년을 다 복역하고 나올 무렵이 70년대 초입니다. 바로 전향공작을 했던 그 시기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신’ 정권은 20년으로 감형된 비전향 좌익수가 전향을 하지 않은 채 사회로 나가는데 대해 위협을 느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 나가서도 정치적으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향을 강요하는 폭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때 집중적인 전향공작으로도 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저를 잡아 가둔 사회안정법(그것이 1975년에 생겼습니다)으로 모조리 다 보안감호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전향해서 나갔던 사람들마저 다시 잡아들여서 보안감호소에 집어 넣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수의 역사는 대강 이러하고 보안감호소를 거쳐간 사람은 약 1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안감호소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전향한 사람이 약 100명 정도 됩니다. 2/3정도가 전향한 셈입니다. 이 사회안정법이라는 법은 14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89년에 사회안정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전향을 하지 않는 50명 가량의 빨치산 출신, 부역출신, 이런 노인네들이 바깥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교도소에 구금되고 있는 좌익 장기수는 거의 모두 간첩죄라는 죄명을 가진 사람, 90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상전향제도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그리고 그것의 우리나라에서의 전개양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상전향을 거부하면, 혹은 사상전향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전향이라는 제도는 분명 많은 경우 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들 편에서 항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직접 그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전향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이 제도로 비인간화 되는 그런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은 1988년, 89년, 90년 그

쯤에 각 교도소에서 전향을 한 사람들이 전향을 취소하겠다고 단식투쟁을 하는 사태가 잇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폭력에 의해서, 또는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전향을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던 사람들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투쟁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향을 한 사람들이 이 제도로 고통을 받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작된 간첩사건이 대단히 많은데, 조작된 사건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공산주의자가 아닌데도 사상전향서에 공산주의자였지만 이 사상을 포기하겠다고 써야 하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아 먹는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런 계열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일지라도 물론 이 사상을 압박에 의해서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상전향을 한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나약하고 대단히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어떤 자격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인간적인 황폐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상전향 제도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사상전향을 거부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교정누진처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량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석방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감형이 없습니다.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수의 경우에는 영원히 징역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4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세사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4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세사람 있고, 30년 이상 39년까지가 12명이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향을 했으면 누진처우규정이 적용되고 급수가 올라가고(우량수가 되고) 가석방의 대상이 되어 벌써 출소했을 것입니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는 16년 내지 18년 정도 살면 무기수가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익 정치범의 경우에는 사상전향을 하지 않으면 나갈 가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형집행정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시한부 삶을 선고 받고 죽음을 눈 앞에 둔 사람의 경우입니다. 죽음을 눈 앞에 둔 사람은 교도소에서 가지고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행정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상전향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하면 끝도 한도 없는 『독거수형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범과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 자신이 17년 감옥살이를 한 것중에서 미결로 있을 때를 빼고, 그리고 잠시 합방을 한 경우를 빼고는 약 15년 6개월 정도를 독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사람들과 무척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저녁밥을 먹고 저녁 8시 취침할 때쯤 되면 (겨울 같은 때는 더욱) 사동 자체가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신 위생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사실 독거수용규정은 현행법에 의하면 2년 이상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행규정을 특별한 case라는 이유로 무시하면서 십 수년동안 20년, 그런 식으로 독거수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취업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장에 취업을 나갈 수 없음으로써 어떤 노동을 통한 자기성취의 기회도 근본적으로 봉쇄당합니다. 자기 성취라는 측면에서는 노동이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지만 어떤 취미생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독서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독서도 역시 오랫동안 징역을 살았거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책도 없이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관책은 빌려보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그 밖에 사상전향을 거부함으로써 사내에서의 여러 처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취업이 허락되지 않음으로써 누진처우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년 무급수입니다. 급수라는 것은 4급, 3급, 2급, 1급 하는 식으로 올라가면서 처우가 좋아집니다.

우선 운동의 문제입니다.

운동은 엄중 독거수용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사람씩 한사람씩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운동은 단지 마당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해방감을 맛본다거나 하기 위해 일단 넓은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수용시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좁은 데서 왔다갔다 할 뿐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해방감을 맛보기 위한 운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면에서도 정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운동의 질이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엄중 독거수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과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서신문제입니다.

서신문제는 제가 처음 징역을 살 때만 해도 관제엽서 200자수로 제한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서신도 역시 급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이었다가 재작년부터 한달에 두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전향을 하지 않는 한 한달에 두번이상은 안 됩니다. 또한 전향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닌 일반 사람들과도 서신을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의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몇 십년째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과 비슷한 문제가 접견문제입니다.

접견문제 역시 급수에 따라 횟수의 차이가 납니다. 접견도 전향을 하지 않으면 그전에는 한달에 한번이었는데 요즘은 한달에 두번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전향을 하는 데에 교육적인 가치가 없으면 접견자체를 봉쇄시켰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저의 어머님께서 9년동안 저의 옥바라지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께서 일본에서 오셔서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하시고, 김포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교도소까지 가시고 그 광주 교도소 앞에서 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면회를 못하고 돌아가신 일이 비밀비제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만 요즘은 그런정도까지 무지막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직계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면회 자체를 20년, 30년이 지나도록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책에 있어서의 차별문제입니다.

금서목록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제조자들이 바깥 사람들과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수인이기 때

문에 특별히 제한 되어야 할 부분은, 가령 탈옥의 위험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위험이라든가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수용관계상의 문제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법무부에서 금서목록이라는 것을 만들어 광범위하게 독서를 제한한다는 것은 재소자들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방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책의 권수 문제도 사상전향을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집필문제입니다.

저는 감옥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 글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나 겨우 쓸 수 있지 편지 이외의 그 어떤 글을 쓴다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집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의 교도소 중에는 교도소 입소와 동시에 재소자에게 공책과 볼펜을 하나씩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향을 한 사람의 일부만이 특별한 경우에 집필을 하고 있지만 전향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의료문제입니다.

엄중 독거라는 이유로 비전향자의 경우에는 중환자여도 병동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간병을 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간병을 해 주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혼자서 감방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향이기 때문에 엄중 독거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내시설의 이용문제입니다.

비전향자는 엄중 독거이기 때문에 소내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내에 어떤 오락시설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으며, 각종 오락행사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귀휴문제입니다.

귀휴라는 것도 역시 급수가 올라가서 우량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길도 완전히 차단 되고 있습니다. 전향을 하지 않음으로써 받고 있는 불이익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정주의가 무엇인지 누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도라는 것을 당국에서는 『교정주의에 입각한 제도』라고 간혹 설명합니다. 『교정주의』라는 것은 '형벌은 응보가 아니라 교육이다' 하는 시각입니다. 19세기 중반쯤까지는 형벌을 모든 사람들이 응보로 생각했습니다. "너는 이러 이러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보로써 이만큼 고생해야 한다"하는 식입니다.

19세기 중반쯤부터 서구에서는 자본주의 체제가 대단히 발달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결과 실업자도 생기고 범죄자가 대량으로 생기게 됩니다. 누범이라든가 특히 소년범 등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응보가 아닌 교육으로써의 형벌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교정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정주의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 표면적인 인간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형자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교정주의는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우를 일반화가 아니라 개별화 해야 합니다. 즉,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은 이리이러한 처우를 해 주어야 하고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은 이리이러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정주의의 ‘개별화’입니다.

교정주의는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교정의 개별화를 하다보니 교도소 당국에 폭넓은 재량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재량권이 처우 자체의 개별성이라든가 적정성을 기한다기 보다는 정치적 편의라든지 교도소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재량권으로 타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교도소 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교도소 수용자의 처우, 권리들이 법으로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소장은 뭘뭘 할 수 있다” “소장은 접견을 한달에 한번이상 시킬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이 소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장의 재량이라기 보다는 법무부 교정국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어떤 권리가 재소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이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은혜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교정주의가 이루어질 때 누진처우제도라든가 소장의 재량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교육을 하기 위한 개별화가 아니라 교도소 관리를 능률적으로 하고 재소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교정주의에 의한 폭넓은 재량권은 또한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 국민의 권리 제한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도소라는 곳이 권력남용의 소지가 많은 폐쇄된 사회입니다. 저는 이런 폐쇄된 사회일수록 그 사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분명히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량에 맡길 때 행정상의 남용이 이루어지며 인권의 침해가 일상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수형자들의 인권은 행정규칙이라든가 교도관의 재량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의 인권은 가장 뒤떨어진 인권입니다. 교도소의 인권문제는 그 사회의 인권문제를 축약하고 상징하는 인권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들은 자기가 저지른 행위 때문에 누구나가 자격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흔히 ‘쓰여지지 않는 권리는 죽은 권리’나 마찬가지이고, 때문에 그런 불법이 일상화 되게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도소 풍토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상전향제도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6년에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이 아닌 것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장기수의 권리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상전향제도가 교정주의에 입각하고 있는가?

교정주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교육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상전향제도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국가의 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또한 그 사람들을 무작정 잡아 가두어두는 장기 구금주의, 또 이 사람들의 연령이 60, 70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잡아 가두고 있는 처

사, 이런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적인, 사회복귀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상전향제도는, 사상전향제도를 당국은 “교정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교정주의가 일반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교정당국에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라는 선상에서 생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전향제도는 교정주의의 탈을 쓴, 국가 권력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상전향 문제를 가지고 교정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당초에 우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향을 거부하는 사람은 전향을 거부하는 여러가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형벌은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말하는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의 금지와 통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헌법적인 말로 옮기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수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이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 그 동기 같은 것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과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일 된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존재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모든 결단을 하는 과정, 동기... 이런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 역시 사상전향을 무엇 때문에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때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념만으로 사상전향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아무리 높은 이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상전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교도소에 있을 때, 폭력배의 폭력을 받으면서 북한에서 김일성대학의 정치학 교수를 했던 대단히 높은 이론가가 어이없이 울면서 전향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 이유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한 두가지 이유, 또 종이 한장의 문제에 귀착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그런 복잡함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상전향이라는 제도는 이 인간의 존엄성, 이 복잡성을 존중하지 않고 단지 전향이나, 비전향이나? 혹은 혹은냐, 백이나? 하는 식으로 강제로 분류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간의 주체성(자기자신의 결단으로 뭔가 결정한다는)을 파괴합니다. 인간이 뭔가를 결단할 때 공포, 불안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결단해야 인간이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상전향문제는 안 그렇습니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침범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 명기된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와야 하고 침묵을 하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상전향이라는 제도는 십자가 밟기와 마찬가지로 자기 눈 앞에 전향서를 가져 옵니다. 전향서에 서면하지 않으면 비전향수가 되고 서명하면 전향자가 됩니다. 이 두가지 선택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상전향제도는 교정제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고, 우리의 헌

법에도 명기된 양심의 자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도사목은 많은 문제를 안아야 하고, 물론 장기수 문제 한가지만의 문제에 집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에는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가 자신이 그 예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문의 경우, '간첩이니까 고문은 해도 된다' 하는식의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간첩아닌데도 당국에서 간첩이라고 주장하면 고문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그런 관행이 오래가면 간첩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박종철씨라든가 김근태씨 등 이런 사람이 고문당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간첩은 고문해도 된다'는 인권의 예외를 사람들이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교도사목을 하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기수의 문제를 교정 문제의 예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장기수 문제에 대한 행정정책상의 차별, 인권침해, 이런 것들이 있는 풍토에서는 어느 수형자에게도 인권침해와 차별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힌 이들에게 빛을”

이 재후(토마)신부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들로 처리”(요한 8,7)

1. 인사와 서론

조석으로 짜늘한 바람은 손이 시럽고 어설픈 날씨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철부터 파종을 시작하여 농사 지은 곡식을 추수하는 기쁨과 아울러 겨울 동안의 안식을 위해 월동 준비에 바쁜 달입니다. 여름 동안의 무성하던 생명력들은 이제 간 곳 없이 말라가는 잡초들, 울창하던 나뭇잎새들도 낙엽되어 이 구석 저 모퉁이로 굴러 다닙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시들고 말 것이며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문득 제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때를 같이 하여 교회에서는 이 달을 위령 성월로 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을시년스런 찬바람에 철창 안에서 죽음같은 고통을 겪는 외로운 이들, 갇혀 있는 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습막히듯 답답하기만 합니다.

“교도사목회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에 강의를 해달라는 전갈을 받고 당황하여 사양했습니다. 아무런 상식도 지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란 것과 실은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양심의 가책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도소 재소자들을 돕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까지도 그 속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하며 외면해 버리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교도사목이 원하든 원치않든(?) 신부라는 사목적인 책임 때문에 교도소 사목이 싫지만(?) 명령에 의해 주어진 책임 때문에, 또는 교회라는 체면 때문에 때움질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모르고 부족함이 많지만 제 나름대로의 조그만 경험과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문제를 제시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 교도사목의 범위와 문제점

(1) 범 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로 보고 교도 사목의 대상으로 규정해 볼 때 적어도 다음과 같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문규현 신부, 문익환 목사, 서경원 전의원, 임수경 양들은 복으로 향하는 금단의 벽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감시원 비리를 고발한 이문옥 감사관, 군부재자 투표 부정사건을 폭로한 이지문 중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알린 윤석양 이병, 연기군 관권 부정사건의 한준수 군수. 이들이 폭로한 비리와 불법에 대한 수사는 적당히 넘겨 버리고 폭로자들만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

고 있습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 군인, 경찰관은 모두 47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수배 중인 15명을 제외하고 32명 가운데 22명이 양심선언 후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수 중에 어떤 수감자는 시대의 선구자요 예언자로서 작은 예수로 보아야 합니다. 간첩으로 몰려 있는 장기수 중에는 민족을 위해 양심껏 살고 있는 자들로 인식전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양심수, 장기수들은 다른 재소자와 구분하여 사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고 있는 재소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인데 그중에 특히 사기꾼과 다른 범죄자들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감 후에 국가 정책으로 이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 정치범, 사상범은 쉽게 만날 수 없는 교정제도 개선 -

(2) 문제점

진인적 사목이 아니라 동정적 사목이고 교회체면을 세우는 사목 안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기꾼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36개 교도소와 16개의 소년원 외에 감별소에 5만여 재소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외국의 경우는 500여명 정도를 수용하는데 비해 우리는 수천을 수용함으로써 올바른 교화지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3. 범죄의 원인

범죄의 근원은 개인의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으로 개인화 될 수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도 여기에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소외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됨을 볼 때

(1) 국민을 위하여 못하는 정치제도 속에서 소외된 계층이 생기며

(2) 경제적으로 빈부 격차가 생겨 소외되고

(3) 잘못된 교육 : 인간교육을 배제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4) 개인화 되어져 가는 사회구조

(5) 파장된 가정과 결혼가정

(6) 퇴폐로 치달는 주변 문화 등등은 범죄자를 양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소외된 자들은 항상 돌보시는 예수의 역할을 확인하며 교도소목의 진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4. 예수의 선언과 업적

(1) 시대 배경

먼저 예수 당시의 시대 상황과 소외된 자들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 예수의 조국 유대는 시리아의 오랜 지배에 이어 B.C. 63년에 로마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헤로데 가문을 통해 지배 되다가 예수 12세에 로마는 총독에 빌라도를 파견하여 거의 직접통치를 했습니다. 로마에 납세를 거부했던 첫 항거 때 로마는 2만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

던 빌라도 총독은 냉혹한 통치자로서 저항자를 가차 없이 체포했고 재판 없이 살해했다. (루가 13, 1)

실상가상으로 동족인들도 가진자, 배운자, 힘센자들(대사제, 원로, 율법학자, 일부 바리사이파)의 횡포는 로마 압제에 못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유대 지도자를 이용했습니다. 대사제와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로마 괴뢰 정부의 국정에 참여하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이들은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소외된 계층에서 감당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을 지우고 약한 백성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는 저주받은 백성들이라 하여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예수의 해방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예수는 먼저 누구를 찾아 갔던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가 찾아 갔던 사람은 권력자도, 부자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서럽고 한맺힌 밑바닥 인생들, 피압박자들을 찾아 가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서러운 백성은 첫째로 거지, 병신, 문둥이, 고아와 과부, 날품팔이요, 들째로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창녀, 세금쟁이, 율법과 관습을 지킬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죄인들로서 갇힌자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를 위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루가복음에서는 안식일에 나자렛 회당에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면서 회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50년 마다 경제개혁을 하는 것으로 가난한자, 갇힌자를 해방하는 기쁜 소식이다. (신명기 15장, 레위기 25장)

그러므로 예수의 활동은 소외된 계층의 해방이었으며 이것 때문에 로마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사상을 정리하게 되면 교도소 사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5. 교도소 사목의 중요성

사람 하나를 올바르게 만드는 구체적인 사목이며 예수의 관심이 집중된 사목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이 약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회심으로 해방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므로 올바른 인간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일을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그들을 위한 대책이 교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마련되어 튼튼한 사람이 되기까지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버려두면 재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사목에 더 많은 이들이 진정한 예수의 뜻을 알고 재소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협조하도록 계몽해야 합니다.

6. 사목적인 가르침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도소 재판자들을 돕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 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까지도 그 속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하며 외면해 버리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회와 가족들이 별수 없는 놈들이라 하며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하고 원수 같은 것들이라고 한숨을 짓습니다.

어느날 예수를 트집잡아 올라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왔습니다. 유대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세가지 죄가 있다. (1)신을 모독하는 죄 (2)살인하는 죄 (3)간음하는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내세우고 “우리의 모세법에는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군중도 여인도 처형될 것으로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사형제도를 찬성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도 의외였고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란 ‘범죄욕도 없는 자’란 뜻이요 ‘전혀 범죄할 생각을 품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럴 사람이 없으니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러움으로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 예수님의 애정 가득한 자애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이런 눈물의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살인범 재소자의 눈물어린 수기를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인 즉 피해자 가족들이 와서 울며 원망을 하기는 커녕 먹을 것, 입을 것을 따듯하게 해 주고 갔더라합니다. 차라리 욕을 퍼붓고 때리면 얼마든지 달게 받겠는데 살인자에게 따듯한 사랑을 줄 때는 더욱 괴로워서 한 없이 울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비난과 조소를 받을 때 더 대담해 질 수 있었고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충격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았을 때 목 메인 참회의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될대로 되어버린 시궁창의 여인의 마음 속에 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스며 들었습니다. 밝은 빛의 새생명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재소자들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사회권력 구조의 악법을 만드는 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벌이 된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죄가 엄청나게 크고 많은 자들이 불쌍한 재소자들의 죄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너같은 불량한 놈은 필요 없어.” “차라리 죽는게 낫다.”

집어 들었던 돌을 버리고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대하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1) 기다리는 용서가 있어야 한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 왔을 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시며 기도 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적어도 군중이 다 돌아갈 때까지 글을 쓰며 기다리셨습니다. 재산을 몽땅 털어 먹고 몸까지 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용

서하였습니다. 재소자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조바심대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2) 단죄하지 않는 용서가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단죄한다는 것은 아주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형제도가 효과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흉악한 우도가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 직행할 수 있었던 사실은 누구든지 자기가 범한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넘친 곳에는 회개의 사람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시며 갱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간 불효자에게 오히려 그 아버지는 적극적인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생명을 주고 사는 뜨거운 사랑만이 병든 재소자들이 범죄로부터 새로운 빛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교도사목을 통한 교회의 자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최 남순(크리스티나)수녀

“그가 무엇이든지 당신들에게 이르는 대로 하시오”(요한2장 5절)

저는 처음 이 강의를 부탁받고 오랫동안 기도 중에 생각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현장 사목을 통하여, 재소자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나누면서 너무나 기쁘게 살아 왔으며, 하느님과 재소자들을 통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내 영혼의 성장을 가져온 복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주로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형편이지만 제가 준 것보다는 그들에게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느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저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공짜로 살아 왔을 뿐입니다.

할 말이 있다면 ‘주님 자랑 뿐’인데 나의 언변과 글이란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를 느낀 나머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구구한 핑계를 대고 요나처럼 빠져나갈 구실로 다른 수녀님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느님의 뜻에 걸리고 말았지요.

저는 가르침이나 원고청탁 등을 부탁받을 때 상대방의 말씀이 종종 하느님 음성으로 힘 있게 가슴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 교도 사목에 저를 도구로 쓰신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힘있게 흔들어줄 수 있다면 그들이 뜨거운 감동에 오래오래 젖어 있을텐데....

저는 그것이 자신 없어서 차라리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 말씀대로 ‘그가 무엇이든지 당신들에게 이르는 대로 하시오.’(요한2장 5절) 하신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 줄 밑거름 되어

저는 10여년 전 어느 가을날 수녀님들과 백담사에 소풍을 갔다가 큰 나무 밑에 수북이 쌓인 낙엽더미를 보는 순간 ‘나도 천주교 교도 사목에 밑거름이 되어야 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즉흥시 한편까지 쓴 적이 있었습니다.

백담사 올라가는
산길을 걷다가
문득
발길을 멈추고 서서
큰 나무 한 그루와

그 밑에 쌓인
낙엽을 보며
요셉아,
너의 먼 훗날을
생각했다.

내가
네 발 밑에 묻힌
한 줌 거름 되어
내가
하느님의
큰 나무 된다면

오늘도
낙엽 무덤으로
네 발 아래 었디어
빈다.

일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처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 아흔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늘에서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루가 15장 7절)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며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사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재소자들 교화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낼 때 모세를 필요로 하셨듯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정작 일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너는 내가 옥에 갇히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할때 나르 찾아 주었다.'(마태오 25장 36절) 와 루가복음 10장 23절-37절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 즉 강도에게 맞아 반쯤 죽은 사람을 치료해 줄 것은 물론이고, 더 적극적인 면에서 그 강도에게까지 사랑으로 감싸주고 치료해 줌으로써 복음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범죄가 줄어 들고 더 밝은 사회가 올 것입니다. 전자가 육신의 치유라면 후자는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도사목 회원들은 『마태오 25장』과 『루가 10장』을 앞장 서서 실천하면서 복음 말씀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도 할 수 없었고, 형벌이나 권력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비뚤어진 사람의 마음을 진정한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아주 쉽게 변화될 수 있음을 오랜 경험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무죄한 가족들까지 손가락질과 냉대를 받게 되고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사회는 차갑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부끄럽게 생각하여 면회도 오지 않고 혈육의 인연까지 끊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은 자포자기하여 더욱 나쁜 길로 들어서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수녀는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역할까지 해야 하며 그에게 영성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와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거짓없는 진정한 형제적 사랑 앞에는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오 복된 죄여!' 라고 하신 아오스딩 성인의 말씀을 알아 들을 수 있고, 불쌍함이 있는 곳에 은총도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기에, 본당전교에서 느낄 수 없는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을 나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딛고 제 스스로 굳건히 서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느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교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 대교구 내에는 영등포 구치소, 의정부 교도소, 육군 교도소, 서울 구치소, 영등포 구치소, 성동 구치소가 있으며 소년원과 감별소까지 합하여 8개소가 있습니다. 구치소는 남사와 여사로 구별되어 있어 도합 12개 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서울교구를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보다는 낮지만 12개 소를 위한 전담신부님 두분은 그래도 부족한 것입니다.)

신체장애자나 나병환자는 걸으로 드러나는 일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동정과 도움의 손길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교도소 재소자들은

누구 못지 않게 영혼의 나병같은 상처와 죄라는 장애요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쉽게 도움의 손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는 의학이 발달하여서 옛날엔 거의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나병이나 폐병도 모두 고치게 되었지만, 소외란 병은 약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만이 약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재소자들은 대부분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교도소에서는 축소된 또 하나의 소(小)사회로서 천태만상의 사람들, 무학자에서 박사까지, 죄인에서 의인까지 많은 영혼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하찮은 말 한마디에서 큰 기쁨과 평화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실감나게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수녀님 한번 보면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첫번 대화와는 달리 그들과 만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표정이 밝아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은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도구로 써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큰 기쁨을 느낍니다.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어린 소년들의 교육도 대단히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적 교리교육도 중요하지만 1대1로 하는 상담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의 한사람처럼 형제적 사랑을 갖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정성껏 들어줌으로써 고통을 나누어 받고 동참할 때 그들은 쉽게 변화됩니다.

그들은 수녀란 신분 때문인지 처음부터 거의 100% 마음의 문을 열고 다 털어 놓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얼굴빛 하나 변함없이 천연덕스럽게 정성껏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거기서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 아픈 이야기, 한 맺히고 상처투성이인 마음속 웅어리 진 것을 털어 놓음으로써 스스로 치유도 됩니다.

고통을 나누어 받고 돌아와 최대한 해결사 노릇도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자기를 믿어주고 관심갖고 고통을 덜어주고 나누어 받아주는 거기서 그들은 신발을 벗어 들고 뒤 쫓아와 영세까지 받고 새사람이 됩니다.

재소자들은 영세받은 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작 밖에서 하느님을 알았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텐데...” 사형수들이 집행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고 “진작 밖에서 하느님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았을 텐데...”하고 후회합니다.

재소자 가정방문도 가야 하고, 아버지는 교도소에 구속되고 어머니는 가출했을 경우 공중에 뜨게 된 그집 아이들을 위탁보호하여 교육도 시키고, 고아 출소자가 출소 후에 단속에 걸려 파출소에서 전화오면 밤중이라도 찾아가야 그의 전과가 줄게 됩니다. 소년수를 상담하다가 급하게 담당 검사를 찾아갈 경우도 있고, 판사님을 찾아가거나 진정서를 써서 도와주어야 할 사정도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사형집행장이 있는 곳은 서울구치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네군데에 있습니다. 큰 사건이 나면 징역을 얼마나 받게 될지 대강 짐작이 갑니다. 중형으로 판단될 때 해당되는 구치소에 수감된 형제들을 미결 때부터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찾아가 면담을 시작하여 사형이 확정되고 사형집행과 장례일까지 주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경인지구에서는 사형이 확정되면 서울구치소로 오게 된다.)

때로는 미결 재소자 미혼모를 미혼모 시설에 데려다 주고 보살피야 하기도 하고 소년심판 때 법정에서 자원 보호자로 입회하여 소년 인수증을 써주고 손목잡고 데리고 나와 청소년 기술교육 시설에 위탁 보호시키는 일도 해야 합니다.

재소자들이 교도소 울 안에 있을 때도 잘 돌보아 주어야 하지만 출소 후에까지 계속 연관을 맺어 취직 알선도 해주고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은 참고 기다려주면 정신차리고 스스로 일어 설 때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교정교화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교도소 구치소마다 1년동안 어느 선까지 재소자들이 노동을 통한 수입을 올려야 할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1주에 한번 있는 집회시간에 제대로 사람들을 연출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섭섭하게도 어떤 직원은 교화는 2차 문제이고 밥줄이 달린 직장 이우선이라는 말을 하며 무사고 위주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을 못내줄 경우 수녀의 체면을 위해 미지정이나 미결수 중에 공범이 없는 자들 또는 교육생들을 모아다가 숫자만 적당히 채워 줄 때도 종종 있게 됩니다. 처음엔 속았지만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신자 명단과 예비자 명단을 손에 쥐고 출석을 확인한 후 못나온 사람은 다음날 또 와서 따로 불러 교리진도를 마추어 진도를 올려주고 1주 한번 오면 되는 것을 두 세번을 찾아가서 개인 교리를 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엔 교무과장님께 내부결재를 내서라도 예비자 출석을 전원 나오게 해달라고 바싹 다구쳐서 그들의 밥을 찾아줍니다.

1주 1회 만나서 하는 교리교육으로 영세하기가 부족하니까 통신교리도 하게 하고 프린트 문제집과 과제물을 만들어 주어 혼자 공부하게 하고 확인하여 줍니다. 영세할 날 한두달 앞두고 따로 집중교리를 실시합니다. 겨울과 여름 집회 방학 때 개인면담을 통하여 개인개인 신상을 파악하고 출소 후까지 계속 연관을 맺고 돌봄이 중요합니다. 재범방지의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도 고통도 또한 상대적이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완성되어감을 체험했습니다. 재소자들 대부분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사랑을 못받고 성장했으며 심지어는 일생을 통해 어머니라는 대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불러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적든지 수녀를 자기들의 마음의 고향인 어머니로 생각하고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지금에 와서라도 채워보려고 애쓰는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그들은 나를 모성애라는 차원 높은 사랑으로 이끌어 올려주는 작업을 본인들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체험을 통해 모성애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워서 아프다가도 재소자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벌떡 일어나 교도소를 향해 가면서 '자식 많은 어머니가 언제 자리에 편히 누워 몸조리를 할까? 차라리 다니면서 아프지?' 바로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구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절날이나 이름있는 날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면 그들이 생각납니다. 겨울날 따뜻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죄인으로서 나만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잤다는 생각에 마음이 찡하게 아파옵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분신이라는 단어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 100명 영세 시키는 것 보다 교도소 재소자 1명 영세시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국회의원들이 부정을 많이 한 적이 있었을 무렵 젊은이들이 만들어 낸 수수께끼가 생각납니다.

‘한강물에 국회의원과 신부님이 빠졌다면 두 사람 중 누구를 먼저 건져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썬스가 둔한 보통사람들은 신부님이 신분이 더 높으시니까 그야 신부님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답은 국회의원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한강물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서울 시민전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으니 빨리 건져야 하고, 신부님은 거룩한 신분이니까 오래 계실수록 그 물이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재소자들은 인생의 선배요, 깊은 상처도 더 많고, 머리 좋고 어느 면으로 보나 저보다 나은 점이 더 많음을 생각할 때, 제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영신적으로 성장하고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절감한 나머지 10여년 동안 영적성장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해야 할 활동과 그 활동의 활력소의 근원이 되는 하느님의 에너지, 은총과 사랑을 계속 내 안에 충전시키고 영성생활에 내실화가 든든하게 밑바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 새가 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던 기억이 수녀가 되어 어느날 영신생활에 좋은 대조목상이 되었습니다. 새가 처음 날기 시작할 때는 날개짓을 자주자주 하지만 어느정도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날개짓을 그만두어도 비상(飛上) 하게 되는 것과 같이 영신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찬미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성체조배하고 싶고, 밀려 다니고 끌려 다니며 거져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쯤 가고 있나?

저는 어릴 적부터 자모이신 성교회란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유년시절로 기억되는데 우리집 앞마당에서 어미 닭이 한 무리의 병아리들을 몰고 다니면서 딱이만 생기거나 보게 되면 자기 입에 넣지 않고 ‘구구구’하고 병아리들을 불러 먹이곤 하다가 날이 저물면 마당끝에서 어미닭이 자기 날개를 최대한 벌리고 사방으로 찢찢때면서 ‘구구구구’ 하고 흠어졌던 그 많은 수의 병아리들을 자기 품속 안으로 불러 모아들이던 생각이 떠올라 눈물겨운 어미닭의 사랑에 머리가 숙여지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 모습이 교회의 상징! 작은 교회인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루가 13장10절-17절』 예수님과 회당장의 차이점에 대하여 강우일 주교님의 가슴 뭉클한 강론 말씀을 들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회당장은 우두머리로서 유대교 전통과 질서에만 급급하여 그 부분에만 치우치다 보니 이웃의 아픔이 자기 가슴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8년간 병고에 사로잡힌 여인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병고를 풀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이 예수님 가슴에 와 닿아 그 여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들도 제도 안에 갇혀 살면서 사랑보다는 교회 안에 전통과 구조만을 소중히 여기며 안간힘을 쓰다보면 마치 이 회당장처럼 지나치기 쉬운 위선이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재소자들 편지 속에서 몇번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왜? 교회는 예방교육을 하지 못하고 떨어진 후에 전교하느라고 반대로 애쓰고 있느냐?는, 우리가 풀어야 할 오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모 원죄에 물들이 없으신 잉태에서 힌트를 얻어 예방교육을 개발하신 성 요한 돈보스코의 말씀과 같이 목자가 목마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거의 중산층과 엘리

트화에만 치중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가난과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사목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성직자 수도자가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30년 가까이 서울대교구에서 교도사목을 거쳐가신 신부님들은 수십명에 달하고 있지만 거의가 젊은 층이었고, 중년층의 신부님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12개 소를 위해선 사무실이나 의자도 없이 거의 교도소에 상주하다싶이 해도 모자랄 업무량을, 교회는 지금까지 전담 신부님 단 한분을 임명하시면서 그것조차도 항상 겸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의붓자식 취급을 받으며 온갖 설움속에 살아왔습니다. 여러차례 추기경님께 전담신부님을 보내 주십사 하고 졸라댔지만, 그때마다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상황 중에서 혜성과도 같이 역시 젊은 신부님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너무도 목이 마르게 기다려 오던 전담 신부님! 김우성신부님은 2년도 채 못되는 짧은 기간동안 교도사목의 대혁명을 가져왔고, 놀랍도록 많은 일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료사제 정세덕신부님을 모셨고 함께 손잡고 너무도 아름답게 일을 진취적으로 패기만만하게 씩씩한 걸음을 힘있게 내딛고 있어 감사합니다.

교회는 착한 목자의 모습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아 왔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양들을 위해 특히 소극적이고 체면유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도사목에는 물적, 인적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최후 심판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영세시켰는가보다는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형제들과 사랑과 고통을 얼마나 함께 나누었는지를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정의 현실과 문제점

차형근(스테파노) 변호사

한국 교정의 현실은 두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정을 하는 주체의 현황은 어떠한가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교정을 당하는 사람, 즉 교정의 객체의 현황과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교정의 주체에는 인적 요소로서는 교정하는 사람, 물적 요소로서는 교정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인적 문제나 물적 문제나 양쪽 다 엄청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물적 문제인 교정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유 순석 교정국장님의 강의를 통해 들으신 바와 같이 현 우리나라 교정의 최대 관심사는 가두어 두는 것, 다시 말해서 단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범죄의 길로 빠져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석에서 유 국장님을 만났을 때 유 국장님께서 탈옥하는 자를 잡은 교도소 직원에게 6개월 간의 휴가를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현재 지금의 교도 시설이라는 것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최대의 관심사가 있을 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질이 나쁜 범죄인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 청송교도소인데, 청송교도소는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산속 깊은 곳에 청송교도소를 두는 것일까? 그토록 산속 깊이 위치하고 있는 최대의 이유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정 시설이 늘어나지 못하고 예산 지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인적 지원도 부족한 어쩔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도 그 시설의 최대 역점은 도망가지 못하게 가두어 두는 것에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점 자체가 '가두어 두는 곳' 입니다.

물론 시설 자체는 기본적으로 가두어 두는 곳이긴 합니다만 교정 시설은 문자 그대로 가두어 두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화, 즉 가르치는 것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설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가르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가르치는 사람의 인적 문제로 교정청이 발족되었지만 그 교정 공무원들이 범죄인들을 내 형제요 자매로 생각하며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실제로 그런 열성을 가진 공무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월급도 또한 너무 적

습니다. 그런 적은 보수로는 당장 가정 생활이 어려운데 누구를 가르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적인 카운셀러가 있어서, 범죄인들을 상담하여 그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왔고,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격적인 결함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당신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하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적인 카운셀러도 없고, 실질적인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저 가두어 두기만 합니다.

또한 죄를 범한 사람도 범죄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같은 과실치사로 죄를 지은 사람들과 고의로 죄를 저지른 흉악범하고는 분류수용해서 범죄가 삼투압 현상처럼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범죄자를 한 장소에 가두어 놓기에 바빠서 교도소가 범죄대학이라는 말까지도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한 장소에 수용해 놓음으로써 재범의 확률도 더욱 높아집니다.

가르치는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그런 교정 시설도 없는 것이 한국 교정의 현실입니다. 특히 교정국 공무원의 사기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월급도 적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명감으로 일을 한다 해도 자신에게 직접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잠시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놓았을 뿐이지 아무런 교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사회로 복귀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오게 되는 순환체계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을 뿐입니다.

교정의 객체인 잡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면담을 해보면 자신이 잡혀 있는 것은 돈이 없거나 운이 없어서이지 잘못을 해서 잡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들어 젊은 두 사람이 아가씨 서너 명을 살해한 셋별 룸살롱 살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면담해보니 맨 처음의 범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호기심으로 오토바이가 있길래 한번 타보고 싶어서 그 오토바이를 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 됩니다. 그 일로인해 그들은 인천소년원에서 1년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잡혀 있는 동안에 남들은 다 빨리 나가는데 자신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늦게 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모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출감후로부터 강도 행각을 계속했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정에 굶주려 있을 때 술집에 있는 여자가 자기에게 정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찾아 가다가 그 여자가 변심한 것 같다고 해서 세 명인가를 살해했습니다.

그들을 면담했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소년원에 있을 때 자신들 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가더랍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오토바이 한번 탄 것으로 인해 더한 처지가 되었으니 무조건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다 라고 서슴없이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변호사들 중에는 국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중한 죄를 지었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나이는 많은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

나라에서 변호를 해주라고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국선 변호사는 한 건당 70,000원을 받고 변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70,000원을 받고서는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고 기록하고, 복사해서 보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은 형식적으로 나와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앞으로 다시 안 그런다고 맹세할 수 있죠?” 하고 두 마디정도 물어보고는 끝납니다.

물론 자기 돈을 들여서 열심히 변호하는 사건도 있지만, 범죄인들 자신들이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국선 변호사를 허수아비로 보고, 판사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고, 원래 경찰 단계에서 돈을 써서 빼야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재수없게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교정의 객체가 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교정을 받을 생각도 안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정은 주체도, 객체도 교정이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약을 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 남순 수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형수를 그가 가장 선할 때 죽인다고 하셨는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TV 프로그램이 나간 후에 다른 변호사님들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사형당한다고 하니까 착해진 것이지, 평생 갇혀 있으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악한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더 흉악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정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헛수고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초범인 자가 재범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실 범죄, 즉 교통사고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남의 물건을 한번 훔친 사람은 재범, 삼범, 사범이 되어 아예 교정 당국에서도 그렇고 사법 기관에서도 그렇고 재범, 삼범, 사범이 된다고 하면은, 죄가 들켜서 재범, 삼범, 사범이지 실제로 범죄할 때마다 다 잡아냈으면 40범 50범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잘 봐주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는 어린이가 물건을 하나 훔쳤다고 하면, 그 아이가 가정 교육이 잘못 되서,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들킨 것이 이번 한번이지만 몇 번씩 했을테고 1년 후면 또 다시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봐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정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정을 한다지만 형기를 채우는 기간 동안에 도망을 못가게 막아 놓는 것 뿐이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정의 객체도 교정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두드려 보아도 나오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비관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또한 교도사목 실무자 세미나는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연합회는 왜 만드는 것일까요? 안나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낙수가 떨어져 결국엔 돌을 깨뜨리듯이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교정의 현실은 0%인데 100% 이상을 기대하며 교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단계는 0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0점을 맞기 위한 노력을 해야 순서지, 갑자기 100점을 맞기 위한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제 개인적인 느낌은 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교정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령 10명이라면 그 10명을 집중적으로 교화시켜 그 사람이나마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교화시키려면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고, 일년 이상은 만나야 가능하지 아무나 만난다고 실질적인 교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화 협의회(종교위원, 교화위원)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소자를 만나는 것, 또는 명절이나 추석 때 과일을 주는 것 등 이외에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든지 개인적인 관점에서든지 교정교화를 하려면, 재소자들을 형제 자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대일 만남이어야 하고, 교정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교화교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형수가 교도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교정교화를 열심히 하겠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현실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정교화를 해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정 교화의 최우선 목표는 소년수들이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그들이 한번 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화위원님들의 노력은 사형수들이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에 대한 노력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향후 10년, 20년 뒤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교정교화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고아로 외롭게 자란 어느 소년수에 대해서 매일 찾아가서 반년정도를 만났답니다. 맨처음에는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에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자료를 입수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그가 “어머니!” 하고 손을 잡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를 수양아들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정규교육을 시키고 대학까지 보내고 미국 유학까지 보냈답니다. 이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매일 찾아가서 6개월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변호사들의 경우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에 여력이 있을 때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열의가 없이는 한 사람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가 사회에 나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뒤를 돌보아 주는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전과자를 용납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잡혀 있는 동안에 잠시 성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 뒤를 돌보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되돌아 갑니다. 한 때 착해졌다가 다시 악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교정 기간 동안에 있는 교정이라는 것은 교정의 효과가 보이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교도소를 나와 한 때 1, 2개월 동안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도 칩니다만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전과자를 받아주는 직장도, 그 어느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처음으로 되돌아 가게 되고, 현실적으로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이 편하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정이라고 하는 것을 교정기간에 있을 때의 교정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와 연결되는, 즉 갱생이라고 하는 보호 단체가 따로 있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교정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정의 현실과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10점을 맞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갑자기 100점을 받으려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초석을 놓는 단계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정청과 민간 교정 단체 예컨대 교화협 의회와의 관계 적립이 시급합니다.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임의 단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가의 한정된 예산과 인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활동을 적법하게 하고 넓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 교정이라는 것이 앞으로 0점 단계에서 계속 머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을 교정교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만나고 찾아가서 책도 주고 뭐도 해주고 등등 하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뒤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교화연합회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행정당국이 못하는 부분의 일을 한다는 개념정립을 하여 제도적인 위상정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서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보다는 소년원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 내 아들이요 딸이라는 관점에서 교정교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는 것이 한국 교정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당면문제이고, 가장 바람직스럽고 소망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서없는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